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 전남매일

www.jndn.com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제9090호 (음력 2월 9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백양실업

TEL . 061) 392-7900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개막식이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프레오펜 행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29일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도심 깊숙이 정원의 영역을 확장한 이번 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 등에서 열린다. /김태규 기자

## 800만 관람객 맞을 ‘잔치 준비’ 끝났다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2

내달 1일부터 7개월 꽃·나무 향연  
도심 깊숙이 ‘정원의 영역’ 확장  
‘정원드림호’ 등 새 콘텐츠 관심  
160만 사전 예매...교통 등 만전

29일 오전 찾은 순천시 오전동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막바지 개막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출입구인 ‘빛의 서문’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봄꽃과 울창한 나무들이 시선을 잡았다. 박람회장에는 아직 갈색의 잔디와 채 피어나지 않은 꽃망울이 남아 있었지만, 가지런히 정돈된 정원은 이미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 보였다. 특히 서양식 건축물을 중심에 둔 프랑스 정원과 분수가 인상적인 스페인 정원, 동양의 미가 잘 드러난 중국 정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손님맞이 준비를 끝내고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3년 순천시 국가 최초 국제정원박람회를 선보인 이후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공인 박람회다.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10년 전 박람회가 순천만습지 보존을 위한 115만㎡ 규모(35만여평)의 에코벨트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심 깊이 정원의 영역을 넓혔다. 전체 규모만 544만5,000㎡(165만평)에 달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기간 행사이기도 하다.

800만명 관람객 유치로 목표로 하는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각종 업무협약과 유치 활동으로 이미 160만여명의 단체 관람객을 확보했다. 교육기관 유치 설명회를 통해 방문이 협의된 108만명의 관람객 중 3만명 이상이 개장 직후 박람회장을 찾을 예정이다. 외국인 관람객도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독일 선수단 학생 2,000명, 동남아 권역 6,000여명이 입장권 발매까지 마치는 등 약 10만명 유치가 성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열 가지 빅체인지 등 완전히 새로워진 콘텐츠로 주목받는다. 저류지 정원모델인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이 된 ‘그린아일랜드’, 옛 해룡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가정원벚길’과 ‘정원드림호’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국가정원 권역에는 미래 정원의 모습을 보여줄 시크릿가든과 국가정원식물원과 정원의 개념을 구경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꾼 정원 속 숙박상품인 ‘가든스테이-실랑계’도 눈길을 끈다. 10년 전 일부 박람회장에 연출됐던 야간경관 또한 도심까지 확대해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류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식음판매시설은 식당 9곳, 카페 8곳, 편의점 6곳을 포함해 35개 점포가 박람회장 내 입점했다. 반려동물 특화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정원 서문 입구의 ‘반려견’ 놀이터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최대 세 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시설은 공식 주차장 6곳과 임시주차장 2곳을 포함해 1만여면 이상을 확보, 수용력을 대폭 늘렸다. 임시주차장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국가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조직위는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차량 집중을 방지하고 전 시민 차량 2부제 운동을 펼쳐 교통 흐름을 원활히 관리한다.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입장객 수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피플카운팅 시스템과 안전 드론 운영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구역별 안전 관리 책임제를 시행해 안전한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기간 집중되는 호텔 등 숙박 인프라 수요를 여수, 광양, 보성, 구례군 등 이웃 지자체들과 공유해 전남 동부권 전체의 잔치로 확장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대도시를 흉내내지 않고 특색이 분명하고 차별화된 지방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백화점’ 심의 문턱 넘나

시, 오늘 도시계획위 재논의  
지하차도 등 교통대책 주목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광주신세계의 ‘프리미엄 백화점’ 건립 계획이 광주시 심의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 여부를 재논의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교통 해소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재자문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광주신세계의 확장 계획을 심의 대상으로 입안하지 않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다시 자문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백화점 주변은 물론 광전동 일대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예정지 등으로 범위를 넓혀 교통 영향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 소유 도로 선형을 ‘ㄱ’자 형태로 변경한 데 따른 전후 영향 검토와 주민 민원 해소 방안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2개월여간 보완대책을 마

련해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여 형식으로 건설하는 480m 길이의 지하차도 방향이다.

당초 동서 방향인 무진대로에서 남북 방향인 죽봉대로로 변경했다.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과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의 피해 대책으로는 영업시간에 건물 내부 통로를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새 백화점의 주차면수도 당초 계획보다 160면 가량 늘리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를 대폭 확장해 프리미엄 백화점 ‘광주신세계 아트엔컬처’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백화점 확장을 위해 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고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립해 공공기여하는 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광주신세계 확장이나 현대백화점 복합소방물 건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따로 가겠지만 교통 대책 등은 두 장소를 함께 감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봄꽃과 함께 떠나는  
2023

## 화순 고인돌축제 2023.4.21.~4.30. 화순고인돌유적지

화순군

개막식 & 축하공연  
line up

4. 21. 금 18:00~

화순공설운동장

